

리바이브이스라엘

2020년 8월 21일

겸손과 영적 전쟁

-아셰르 인트레이터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칙은 겸손입니다. 영적 전쟁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기도하며 마귀에게 소리쳐서 영적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것은 여러모로 맞지만, 겸손과 복종의 역할을 모른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학살로 바뀔 것입니다.

야고보서 4:6-7, 10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이 말씀에서 마귀를 대적함에 복종과 겸손이 필요 요소, 혹은 선제 조건인 것에 주목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병행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마귀의 성질이 교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동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마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교만하면 마귀의 전략에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마귀의 공격에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왔을 때 마귀는 영적 교만("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 창 3:5)과 지적 교만("선악을 알 것이다" - 창 3:5)으로 호소했습니다. 지적, 영적 교만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마귀가 하는 활동의 뿌리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복종함으로 이 두 교만을 대적할 때 우리는 마귀

활동에 대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적 교만은 반역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교만이 그의 반역을 부추겼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28:17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높아졌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

여기서 “높아지다”라는 단어는 “가아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의 어근과 유사합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 나쁜 태도를 갖게 하여 결국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분열은 교만이 원인입니다. 당사자 중 한 쪽이 자기를 낮추면, 그 분열은 최소화됩니다.

예슈아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눅 11장**). 마귀는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지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마귀는 분열과 반역을 일으켜 그렇게 합니다. 분열과 반역은 그 원천이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씨가 자라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면 우리는

마귀에게 그 토양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종종 교만은 개인적 불안이나 거절의 두려움을 감추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복어처럼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자신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심리적으로 온전하고 내적인 힘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안을 감추는 교만의 징후 중 하나는 “기분이 잘 상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아주 예민해요”하며 교만과 불안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기분이 상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대체 방법은 “자존심(교만)이 다치다” 혹은 “명예가 모욕을 입다”입니다. 별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옳다고 아주 확신하는 사람이 교만에 빠져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한 사람, 혹은 가장 똑똑한 사람, 혹은 가장 기름부음 받은 사람, 혹은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을 통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바로잡음과 회개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속히 고치도록 합시다.